

이 주의 투자 포인트 (9월 29일 주)

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정부 섀다운 협상과 고용지표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. 고용지표가 약세라면 금리 인하 기대 강화로 성장주와 장기채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. 개별 산업 및 종목 영향으로는 테슬라 인도량 발표와 트럼프의 제약 관세,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크가 주목할 만합니다.

1. 미국 글로벌 의약품 관세 부과 발표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특허 및 브랜드 의약품에 100%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
- 단,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예외
- 일부 일본, 호주, 인도 제약/바이오 기업들이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발표 직후 주가 하락 반응
- 정부는 의약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SK바이오팜, 삼성바이오로직스, 롯데바이오로직스, 대웅제약, 셀트리온 등 주요 수출 기업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글로벌 제약/바이오 기업: 미국 외 생산에 의존하는 기업은 공급망과 가격, 마진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, 반대로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춘 제네릭/원료의약품/포장업체에는 수혜 예상
- 국내 기업: 미국 생산 계획이 없는 수입 의존형 제약사 단기 타격 불가피
- 10월 1일 이전 나올 수 있는 예외 품목 공지와 기업들의 미국 설비 투자 계획 검토 필요

2. 트럼프의 마이크로소프트 고위 임원 해임 촉구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트럼프 대통령은 27일(현지시간) 트루스소셜을 통해 "국가 안보 위협"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어페어스 총괄 리사 모나코의 해임을 요구
- 모나코는 오바마 및 바이든 정부 요직을 거쳤으며 실제로 지난 3월 바이든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보안 인가와 국가 안보 정보 접근 권한이 박탈된 상황. 모나코는 7월에 MS에 합류해 외국 정부 미추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사이버보안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현 정황은 MS의 정부계약과 정책 리스크를 더 키우고, 빅테크 전반의 규제 및 정책 노출도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.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압박 리스크도 높아진 상황
- 정치/정책 리스크는 종종 정책 우려 → 계약 지연 → 실적 가시성 악화로 이어지므로, 실제 주가 타격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 있음
- 단일 종목 집중을 피하고 하이퍼스케일러 분산 투자가 방어적인 전략

3. 고용지표 미리보기

어떤 뉴스이고 왜 중요한가요?

- 8월 비농업 고용은 2.2만 명 증가, 실업률은 4.3%로 소폭 상승하며 둔화로 나타남
- 이번 주에는 9월 ADP 고용보고서(10/1),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(10/2), 9월 고용보고서(NFP, 10/3) 가 차례로 발표 예정
- 시장 예상치: 9월 비농업 고용은 5.1만 명 증가, 실업률은 4.3%

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

- 지표 결과 시나리오 별 대비 필요
- 고용이 완만히 회복 (예상치 부합): 성장주 재확대 되거나 경기민감주(소비재, 산업재) 로 매기 확산
-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: 금리 인하 기대 강화 → 성장주 강세.
-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좋으면: 금리 인하 기대 약화 → 성장주 조정 가능성

Compliance Note
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의 애널리스트와 배우자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에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